

SUNBO NEWS

PLUS2020 | 고객이 영업을 창출하는 명품 모듈 생산 초우량 기업

2018년 3월 15일

vol. 170

since 1986

www.sunboind.co.kr

E-mail sunbo@sunboind.co.kr

대표전화 051. 261. 3454

본사주소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산로 80

사훈 항상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자

주요 소식

'KICOX 글로벌선도기업' 부산지회 회원사 본사 방문 부산지회 정기 교류 및 회원사 간 발전 도모



지난 3월 6일 KICOX 글로벌선도기업 부산지회 회원사 방문단이 본사를 찾았다. 동화엔텍, 파나시아, 대창솔루션, 아즈텍WB, 태웅, 트렉스타, 영도산업, 마이텍 등 8개 회원사 대표이사를 비롯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 부산지역본부장, 스마트산업 지원단장, 혁신성장교육팀장, 기업지원팀, 글로벌

선도기업협회 사무국장 등 14명으로 구성된 방문단이 우리 회사를 찾은 것은 KICOX 글로벌선도기업 부산지회 회원사 간 정보교류 강화 및 선진 기술 공유 등으로 상호 간 발전도모와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였다. 현재 KICOX 글로벌선도기업 부산지회 지회장을 맡고 있는 최금식 회장은 이날 '2018년 글로벌선도기업 운영계획 설명회' 및 '2018년도 활동계획 논의'를 주관하였으며, 식사 후에는 구평공장·구평1공장 공장투어를 통해 우리 회사의 모듈 생산 현장을 직접 안내하였다.

한편, 국가산업단지의 개발 및 관리와 입주 기업체의 생산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설

립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공공기관 '한국산업단지공단(Korea Industrial Complex Corporation, KICOX)'은 산업단지 출범 50주년을 맞은 지난 2014년부터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우수기업을 발굴해 명예의 전당에 헌정하고, 집중 육성하는 '글로벌선도기업 선정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산업단지 입주기업 중 성장가능성과 수출비중이 높고 혁신성을 갖춘 곳을 대상으로 2020년까지 총 300여 개 우수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글로벌선도기업으로 선정되면 종합지원 플랫폼 집중 지원과 함께 각종 금융권 혜택을 이용할 수 있다. 지난 2016년 150개 업체에서 2017년 33개사를 추가, 현재까지 183개사가 글로벌선도기업으로 선정되었다.

KICOX에서는 원활한 업체 선정 및 지원을 위해 권역별로 11개 지회를 구성하여 지회장을 중심으로 기업 간 교류협업체를 운영 중이다. 현재까지 글로벌선도기업으로 선정된 부산 기업은 14개 업체이며, 지난 2015년 글로벌선도기업으로 선정된 우리 회사 최금식 회장이 부산지회의 지회장을 맡아 활발히 활동 중이다. 불황의 돌파구를 찾아 다양한 대내외 활동을 펼쳐나가며 솔선수범하는 최금식 회장의 의미 있는 행보가 선보 혁신의 마중물이 되어주기를 기대해본다.

회사 소식

최금식 회장, 청와대 '청년일자리 대책 보고대회' 참석



최금식 회장이 지난 3월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청년일자리 대책 보고대회' 및 제5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였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중소기업 취업자와 대기업 취업자 간의 실질 소득 격차를 해소할 것, 중소기업의 신규 고용에 대

한 지원을 파격적으로 늘려 신규 고용의 여력을 만들어줄 것, 지자체 및 민간과 협력하여 청년 창업을 획기적으로 활성화함으로써 개방적 혁신국가를 건설할 것 등 청년 일자리 대책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였다. 이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재정기획부 장관의 '청년일자리 대책 필요성' 보고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의 '청년고용 지원 방안', 홍준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청년취업 및 청년창업 촉진 방안',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청년장병 SOS프로젝트',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창출 방안'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우리 선보와 같은 중소기업이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현실화되기를 바란다.

사내 문화

직원 격려의 날 행사 마련



각 공장 임원 및 공장장이 설 연휴 이후 출근하는 직원들에게 격려 인사를 전하는 행사가 올해도 마련되었다. 2월 19일, 모처럼의 연휴를 보내고 새로운 마음으로 출근하던 직원들의 얼굴에 반가움이 번졌다. 임원들이 직접 선보 가족들을 맞이하며 반갑게 인사를 건네고 일일이 악수를 청하는

현장. 임원들은 직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격려의 말을 전했고, 직원들은 든든해진 마음으로 새로운 각오를 다지며 새해를 시작하였다.

임원들이 명절 연휴 끝 첫 출근하는 직원들을 격려하는 '직원 격려의 날' 행사는 명절마다 빠뜨리지 않고 진행되어온 우리 회사의 전통이다. 최금식 회장 및 각 임원들은 평소 살갑게 대화 나눌 기회가 적은 직원들의 손을 따뜻이 맞잡고, 웃음을 건네며, 격려의 덕담으로 새해를 연다.

직원들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고 복지 및 처우 개선을 위해 마음으로 먼저 다가가려는 우리 회사의 노력은 올해에도 계속될 것이다.

회사 소식

선보엔젤파트너스.라이트하우스컴바인인베스트 최영찬 대표, <국제신문>과 인터뷰 진행

14 기획

2018년 2월 20일 화요일 국제신문

“스타트업, 기존 산업과 연계돼야 살아남을 수 있어”

부산 경제 미래 이끈다

(7) 라이트하우스 컴바인인베스트-선보엔젤파트너스 최영찬 대표



부산이 대표적 창업도시로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최영찬 대표는 “스타트업이 기존 산업과 연계돼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스타트업이 기존 산업과 연계돼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스타트업이 기존 산업과 연계돼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영찬 대표는 “스타트업이 기존 산업과 연계돼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스타트업이 기존 산업과 연계돼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스타트업이 기존 산업과 연계돼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망 스타트업 성장 돕고 투자 생태계 조성에 앞장

선보엔젤파트너스 대표인 최영찬은 “스타트업이 기존 산업과 연계돼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스타트업이 기존 산업과 연계돼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스타트업이 기존 산업과 연계돼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 국제신문 2018. 02. 20 - 14면



납품

S246 한화 COLD BOX 알루미늄 파이프 제작



제작해보며 파이프 제작 공정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 수 있었다.

NDE(비파괴검사) 장비를 45도 틀어야 하는 등 제작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하나 하나는 직원들에게 소중한 경험이 되었다. 정호경 전무가 아이디어를 내어 자동 용접 WPS(Welding Procedure Specification)를 취득한 것은 그러한 예 중 하나이다. 15mm 이상의 플레이트 및 파이프의 미그 용접 시, 사람이 직접 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용접 품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자동 용접 WPS를 취득함으로써 공정을 단축할 수 있었다.

지난 1월 LOTTE에 COLD BOX(열교환 장치)를 성공적으로 납품한 구평1공장은 4월 15일 납품을 목표로 'COLD BOX HANHWA'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직원들은 제작된 파이프를 설치하는 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직접

지난 2월 20일 <국제신문>은 창업 투자사인 선보엔젤파트너스와 라이트하우스컴바인인베스트를 이끌고 있는 최영찬 대표의 인터뷰 기사를 실었다. 선보엔젤파트너스와 라이트하우스컴바인인베스트의 설립 취지 및 사업현황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선보공업 최금식 회장의 자제로서 아버지로부터 배운 최영찬 대표의 경영철학을 전한 것이 기사의 주요 골자이다.

최영찬 대표는 먼저 수주절벽에 부딪힌 조선업에서 선보공업이 새로운 길을 찾기 위해 시작한 액셀러레이터사가 선보엔젤파트너스라고 소개하며, 선보엔젤파트너스의 출범 배경에는 선보공업이 30여 년 동안 부산지역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서 받은 도움을 지역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로 환원하는 의미가 있다고 전하였다. 2016년 2월 출범한 선보엔젤파트너스가 3년 이하 초기 단계 스타트업에 투자한다면 지난해 3월 출범한 라이트하우스 컴바인인베스트는 3년 이상 된 스타트업에 투자한다는 것이 최 대표가 설명한 두 회사의 차이다.

기사는 선보공업 최금식 회장의 자제로서 최 대표가 아버지로부터 배운 기업 경영의 가치에 대해서도 전하였다. 최 대표는 부산 사하구의 10평 남짓한 작은 공장에서 출발한 선보공업이 '선박 모듈 생산'이란 아이디어로 30여 년 만에 지역 중견기업 반열에 오르는 영광을 지켜보았다. 창업 당시 작은 공장에 책상 2개, 전화기 3대를 두고 사업을 시작한 최금식 회장의 모습은 아직도 최 대표의 기억에 생생히 남아 있다. 최 대표가 기억하는 선보공업 초기의 상황은 어려움의 연속이었다. 주변에서 도와주는 투자사나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었던 당시를 떠올리며 최 회장이 “누군가 조금만 투자했다면 5~10년이란 세월을 앞당길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는 했는데, 이런 생생한 경험에서 최 대표는 창업 투자사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보았다. 이처럼 인터뷰를 통해 최 대표는 창업투자사를 출범하기까지 최금식 회장과 선보공업이 미친 큰 영향에 대해 이야기하는 한편, 창업 당시 투자처를 찾기 어려워 힘든 상황 속에서도 '파트너십'이란 가치를 포기하지 않았던 최금식 회장의 올바른 성품을 언급하였다. 아버지로부터 배운 이 파트너십은 현재 창업투자사를 운영하면서 가장 도움이 되는 가치이기도 하다고 전하였다. 기사는 최 대표가 유학 시절 및 몇 차례 창업을 통해 배운 '공감' 능력을 창업투자사 경영에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하였다.

현재까지 선보엔젤파트너스는 총 27억여 원을 투입해 부산지역 스타트업 25개사에 투자를 마쳤고, 중소벤처기업부의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지원사업인 '팁스' 운영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라이트하우스 컴바인인베스트는 지역에 기반을 둔 중소·중견기업과 산업은행이 출자한 42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운용 중이다. 30년간 선보를 이끌어온 최금식 회장에게 전수받은 파트너십과 최영찬 대표가 여러 경험을 통해 쌓은 공감 능력을 바탕으로 지역 스타트업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고 있는 선보엔젤파트너스와 라이트하우스컴바인인베스트, 기사에서도 기대를 하였듯, 이 두 회사가 부산 경제의 미래를 이끌 날이 기다려진다.

납품

SH919 FGSS 납품



지난 2월 22일 다대2공장은 '현대엔진'이 수주한 연료공급장치 FGSS(Fuel Gas Supply System)를 현대삼호로 납품하였다.

이번 납품 건은 전체 납품이 예정된 6척 중 첫 번째 호선에 해당하며, 지난해 현대미포에 납품한 이후 다대

2공장에서 생산한 네 번째 FGSS이다. FGSS는 Dual Fuel Engine에 가스연료를 공급하는 장치로서, 'ME-GI 엔진'에 적용되는 고압용 FGSS와 'X-DF 엔진'에 적용되는 저압용 FGSS가 있다. 이번에 납품한 제품은 저압용 FGSS로, 국내에서 우리 회사가 처음 납품하여 그 의미가 크다. 제작 중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었지만 각 부서의 도움으로 원활하게 납품을 완료할 수 있었다. 우리 회사는 올해 안에 나머지 5척의 FGSS 납품을 더 진행할 예정이다. 국내 처음으로 저압용 FGSS를 성공적으로 납품한 첫 번째 프로젝트를 계기로, 각 부서가 협업하여 남은 납품 역시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를 기대한다.

안전

안전지원제 및 지신밟기 실시



지난 2월 24일(음력 초하루) 낮 12시 10분, 선보패밀리 전 공장에서는 한결같이 색다른 풍경이 연출되었다. 2018년 무술년(戊戌年)을 맞이하여 선보 가족의 안전과 무재해를 기원하는 안전지원제가 열린 것이다. 정성으로 마련한 술과 과일 등 음식으로 상이 차려졌고, 직원들은 무사고를 기원하는 진심을 담아 천지신명에게 제를 올렸다. 선보공업(주) 다대1공장의 안전지원제에 참석한 최금식 회장은 다대1공장 직원들에게 “올 한 해 절대 다치지 말고 웃으며 일하자”고 직원들을 독려했다. 다대2,3공장, 선보유니텍(주) 구평, 구평1공장에서도 각 공장의 공장장, 생산관리자, 관리감독자, 협력업체 소장, HSE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어느 때보다 엄숙한 분위기로 안전지원제가 진행되었다. 최근 각종 안전사고들이 매스컴을 오르내리며 사회적 이슈가 되는 만큼, 더욱 철저히 안전한 현장 만들기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하였다.

이어 2월 28일에는 다대2동 청년회와 함께하는 지신밟기 행사가 선보공업(주) 다대1,2,3공장에서 진행되었다. 지신밟기는 정초에 지신을 진압함으로써 악귀와 잡신을 물리치고 공장의 안전과 다복을 비는 행사이다. 이날 다대2동 청년회와 풍물패는 각 공장 담당자들과 함께 선보공업(주) 전 공장을 두루 돌아다니며 무사 기원과 모든 일이 잘 풀리기를 기원하는 뜻깊은 행사를 가졌다.

우리 회사는 환경, 안전, 보건(H.S.E) 방침을 경영의 기본 요소로 삼고 ISO14001(환경경영시스템) 인증 및 OHSAS 18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하여 안전과 보건 및 환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데 더하여, 안전제일의 가치관과 환경보전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2015년부터는 전사적 무재해 사업장 조성을 위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관리감독자를 임명하고, 2016년 ‘무재해 선포식’을 통한 무재해 실천 서약서 작성으로 임직원들의 안전의식 제고의 기회를 마련했으며, 매주 월요일 ‘전사안전점검의 날’ 지정 및 월간 ‘중점테마점검’ 등 다양한 안전 관련 프로그램을 이행하고 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임직원의 철학이 담긴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교육

영어회화교육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업무역량 기대



직원들의 영어 능력 향상을 위한 전사 사내 영어회화교육이 3월 6일부터 시작되었다. 글로벌 시대, 세계적인 수준의 회사로 성장하는 데 영어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외국선주 및 외국바이어의 방문과 업무협회가 빈번한 우리 회사는 영어회화 활용도가 어느 회사보다 높은 편이다. 이에 직원들 개개인의 영어회화 능력 향상이 요구되는 바, 영어회화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 영어 교육 과정은 6개 반 총 45명으로 편성되어 4개월간 매주 화, 목 저녁에 90분간 실시될 예정이다. 직원들의 회화 수준에 따라 초급/중급으로 클래스를 나뉘어 진행하며 초급반은 차신아·박희정·이수진·정영록 강사가, 중급반은 캐나다 국적의 Brendon 강사와 교포 출신의 박은정 강사가 맡았다. 한편 우리 회사는 이번 영어교육이 단순한 일회성 교육에 그치지 않도록 직원들의 의지를 북돋을 수 있는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였다. 올해부터 외국어회화 점수를 인사고과 시 가점 대상에 포함하기로 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내년부터는 외국어회화 공인점수가 없을 시 승진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조정할 예정이다. 이에 더하여 직원들의 외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역시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회사에서 마련해준 모처럼의 기회를 계기로 더욱 능력 있는 선보인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교육

원가절감 교육 선보 맞춤형 실천 방안 논의



연간 교육일정에 따른 전사 원가혁신교육이 2월 24과 3월 10일 양일간 본사 교육장에서 실시되었다. 현대로템 기술교육원이 주관한 이번 교육은 ‘원가혁신을 통한 역량강화를 위한 제조원가혁신교육과정’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과장~부장 직급의 직원 총 50명이 참여하였다. 21세기 새로운 패러다임을 인식하고 ‘원가 중심의 관리 Mind’를 함양하는 한편, ‘원가혁신을 통한 업무처리 능력’과 ‘직무상의 문제분석 및 해결을 위한 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특히, 우리 회사가 속해 있는 조선산업 현장의 낭비 문제를 짚어보고 실제 현장 문제와 LOSS를 통해 ‘선보 맞춤형’ 문제해결 역량을 제고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실제 현업 적용력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강의는 조별 활동으로 진행되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우리 회사의 원가절감방법에 대하여 조원 간 토론해보는 시간을 통해 우리 기업의 현실과 기업환경의 변화, 조선산업에서의 접근방법과 개선방향에 대해 고민해보는 기회를 가졌다.

무한 경쟁 시대 기업은 ‘최적의 품질을,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가장 빠르게 공급받기’를 원하는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강한 원가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 환경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려는 이 같은 노력이 직원들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선보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사내 복지

선보Family 졸업식 참석 및 간담회 실시



지난 2월 우리 회사는 재직 중인 고등학생 실습생들과 대학교 재학 중 취업한 직원의 졸업을 축하하기 위해 졸업식에 참석하였다. 졸업식 참석은 우리 회사에서 훌륭히 실습기간을 수료하고 있는 직원들을 축하하고 산업 일꾼으로서 첫발을 내딛는 직원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려는 목적으로 매년 진행되는 의미있는 행사이다. 올해는 고등학교 실습생 9명과 대학생 1명으로 총 10명의 선보Family가 뜻깊은 졸업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어 2월 26일에는 최금식 회장이 졸업생들을 모아 직접 졸업 축하의 말을 전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졸업생들뿐만 아니라 각 공장 및 부서 담당자들이 참석하여 다과를 나누었으며, 졸업생 각자의 각오를 듣고 인생 선배로서의 덕담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선보유니텍(주) 플랜트품질팀의 김경연 사원은 “회사 선배님들이 졸업식에 참석해주셔서 뜻깊었다. 선보Family로서의 소속감이 한층 깊어진 것 같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교육

‘사가(社歌) 부르기 노래교실’ 특강 실시



지난 3월 9일, ‘사가(社歌) 부르기 노래교실’ 특강이 본사 교육장에서 실시되었다. 이번 특강은 회사에 대한 자긍심 고취 및 조직문화개선을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이날 최금식 회장이 직접 참석하여 70여 명의 임직원들과 함께 사가를 배우고, 불러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최금식 회장은 “회사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전 임직원들이 평소에도 사가를 자주 부르면서 일체감을 만들어가자”고 전했다.

‘사가 부르기 노래교실’은 3월 15일 구평1공장에서 진행되어 선보인으로서 일체감을 고취시켰다. 향후 단순히 아침방송으로서의 사가가 아닌, 전 임직원들의 응원가이자 주제가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회사 소식

설계부, 해신제 개최



지난 2월 24일 우리 회사 설계부는 물운대에 모여 해신제를 열었다. 설계부에서는 매년 초 조선 설계부의 무사 안녕과 사업실적 100% 목표 달성을 위한 기원제를 지내고 있다. 매년 산에서 지내던 시산제와 달리 올해에는 특별히 바다에서 해신제를 시행하여 여느 해와 다른 색다른 경험이 되었다. 물운대에 모인 직원들은 정성을 다해 준비한 음식을 차려두고, 회사의 발전과 직원들 개개인의 발전을 위해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진심을 담아 제를 올렸다.

이번 해신제에 참여한 선보공업 설계1팀 편재웅 사원은 “설계부원 모두의 염원처럼 올해에도 훌륭한 결실을 거두고 빛나는 성취를 이루어 경영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나누는 글

한 획의 기적

‘고칠병’에 점 하나를 찍으면 ‘고칠병’이 됩니다.
불가능이라는 뜻의 단어 ‘Impossible’에 점 하나를 찍으면 가능하다는 의미의 ‘I’m possible’이 됩니다.
부정적인 것에 긍정의 점을 찍었더니 불가능한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Dream is no where(꿈은 어느 곳에도 없다)가 띄어쓰기 하나로 Dream is now here(꿈은 바로 여기에 있다)로 바뀝니다. 부정적인 것에 긍정의 점을 찍으면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도 한순간 마음을 바꾸면 모든 것은 가능합니다. 무심코 찍은 점 하나가 의미와 목적을 바꾸듯 무심코 바꾼 생각 하나가 인생을 바꿉니다.
모든 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렸습니다. 오늘도 긍정적인 삶에 점 하나를 찍고 감사로, 미소로 하루를 보냅시다^^



생일 축하합니다

☑ 본사	한국보(3.16)	박장혁(음3.02)
	박문염(음3.22)	최재호(음3.24)
☑ 1공장	고재석(3.01)	
☑ 2공장	문수형(3.10)	김성호(3.12)
	와 완(3.19)	김승우(3.24)
	최봉순(음3.23)	
☑ 3공장	제구원(3.10)	석종현(3.14)
☑ 구평공장	예연희(3.01)	안석영(3.03)
	이은석(3.03)	이정호(3.03)
	제승수(3.05)	이시로일(3.08)
	오창배(3.10)	이옥란(3.17)
	왕청해(3.21)	권희정(3.28)
	손대석(음3.14)	임우택(음3.22)
☑ 구평1공장	오신애(3.01)	이인규(3.05)
	김도재(3.06)	김충민(3.06)
	안길병(3.06)	나상덕(3.10)
	이혜린(3.10)	박정호(3.14)
	김종석(3.15)	전희식(3.15)
	신복남(3.17)	이대희(3.18)
	이경식(3.20)	전민재(3.20)
	서재춘(3.21)	홍성오(3.21)
	윤상동(3.24)	한성수(3.25)
	황규섭(3.30)	이병민(3.31)
	김준호(음3.05)	
☑ 영암공장	박상부(3.05)	이용우(3.12)
	김대영(3.15)	박민석(3.20)

임사 기념일

☑ 본사	정호경(3.01)	김형진(3.03)
	편재웅(3.03)	황지석(3.03)
	성재경(3.04)	이대현(3.05)
	유병창(3.06)	이석형(3.06)
	최두영(3.07)	윤준호(3.10)
	이지영(3.14)	김청욱(3.20)
	강민준(3.23)	
☑ 1공장	신승훈(3.01)	백관우(3.02)
	조숙희(3.09)	엄익상(3.18)
☑ 2공장	하 김(3.01)	최철환(3.15)
☑ 3공장	최경림(3.01)	임종화(3.26)
☑ 구평공장	하만수(3.01)	박춘복(3.02)
	정황수(3.02)	김남준(3.03)
	김지상(3.05)	김연진(3.06)
	김정식(3.06)	강은지(3.08)
	이성일(3.09)	정광진(3.16)
	김중학(3.18)	백 (3.24)
	아크람(3.24)	김주환(3.26)
	나탈리아(3.27)	
☑ 구평1공장	손영돈(3.01)	이상숙(3.01)
	이재근(3.01)	조영조(3.01)
	최규환(3.01)	박현일(3.06)
	서재춘(3.07)	양상구(3.09)
	유대성(3.09)	김창주(3.17)
	리춘엽(3.17)	이미옥(3.17)
	이혜린(3.17)	조연주(3.17)
	김정수(3.24)	최성욱(3.29)
☑ 영암공장	박명관(3.01)	정봉주(3.01)
	박민석(3.05)	